

광양 ‘미래형 산업 3각축’ 완성...첨단산업 도시 ‘성큼’

이차전지·수소·스타트업 중심

국내 유일 리튬 모든 공정 완결

2028년까지 수소 인프라 구축

지식산업센터 23개 기업 입주

광양시가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이차전지·수소·스타트업을 축으로 한 ‘미래형 산업 3각축’을 완성하며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민선 8기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

성을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튬 원료 확보부터 전구체·양극재 대량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한 도시 안에서 완결하는 이차전지 폴 밸류체인을 갖췄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그동안 중국산 탄산리튬 의존도가 높았으나, 광양은 자립형 공급 체계를 통해 원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광양시는 이차전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촌 산단 일원 40만 평(132만여㎡) 기회발전특구 지

정 추진 ▲2023년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한 국가 산단 동호안 매립지 활용 규제 완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폐배터리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의 노력과 기업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차전지 폴 밸류체인이 완성됐다.

시는 이차전지 산업에 이어 수소 산업도시로의 전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광양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으며, 2028년까지 생산·이송·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이자 새로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향후 전국 수소경제 확산을 이끄는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활용한 청정수소 수입 거점 항만화와 포스코 철강공정의 수소환원 전환이 맞물릴 경우, 광양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지역 산업 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과거 인구 7만명의 작은 농어촌 마을이었던 광양은 198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기로 40여년간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성장했다. 최

근에는 산업 구조 전환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경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도 속속 갖추고 있다. 올해 1월 문을 연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철강·에너지·융복합 산업 분야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개소 5개월 만에 23개 기업·기관이 입주를 완료해 운영에 들어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은 광양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필 기자



장성군은 지난 21일 옥성면 화산리 쪽파 수경재배 시범농가에서 시범농가와 지역 농업인,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성=세종>

장성군 ‘수경재배 쪽파’ 신소득작목 육성

노지 재배 기간比 10일 ↓

연중 생산량 3배 이상

장성군이 쪽파 수경재배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농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성군은 24일 “지난 21일 옥성면 화산리 쪽파 수경재배 시범농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쪽파 수경재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가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범농가와 지역 농업인,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쪽파 수경재배와 농업기술 보급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농가 0.5ha 규

모로 쪽파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수경재배는 노지 재배보다 10일 정도 재배기간이 짧아 30~40일이면 수확할 수 있으며 연중 생산량도 3배 이상 많아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수경재배 쪽파가 군 틈새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시설 확대를 이어가겠다”며 “추가적인 신규 소득작목 발굴·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군, 청년 창업 우수업체 후속 지원

오늘까지 모집...최대 1천만원

보성군은 24일 “25일까지 ‘2025년 청년 창업 후속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이후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자금·경영·관료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창업가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 3년 이내 창업가 중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이다.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업체를 선정하며 최대 1천만원의 성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부족뿐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 마케팅 역량 미흡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으로 파악했다.

이에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과 연계한 경영관리·마케팅·관료 개척 등 실무 중심 교육도 함께 운영해 맞춤형 역량 강화를 돕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후속 지원이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뿌리내린 창업가들이 성장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고흥군은 지난 21일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 온기나눔 하계 캠프’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자원봉사자 온기나눔 하계 캠프

전문성 강화·협업 도모

고흥군이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봉사자간 협업을 도모하는 ‘2025년 자원봉사자 온기나눔 하계 캠프’를 개최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자원봉사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증 전수, 소통과 힐링 특강, 재난 현장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열두 가지 온기, 열두 달의 나눔’ 활동과 공무원 자원봉사 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하계캠프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결속력이 강화되고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 나눔연수원 운영,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시책 추진하며 고흥군을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박현진 기자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하세요”

26일까지...2인1팀 구성

곡성군은 24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K-Food 먹거리개발과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목표로 개최하는 ‘2025년 제3회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곡성군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춘 맛 대전 !! 요리하는 청년, 곡성을 답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2인 1팀을 구성해야 한다. 팀원 중 1인은 청년(15세~49세 이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조리 관련 특성화고 및 조리학과고 재학생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ria@farmnd.co.kr)로 신청하면 된다.

곡성 농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 요리 개발을 위해 토란, 멜론, 딸기, 사과, 블루베리, 백세미,

흑돼지, 삼기찰옥수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곡성 특산물 활용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재료비 20만원은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서면 심사는 오는 9월5일 본선 진출 10개 팀(20명)을 선정하며, 본선은 오는 9월27일 곡성읍점심가치마을 주무대에서 요리경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창의성, 완성도, 지역성, 창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시상은 총 10개 팀을 선정하며, 대상 1팀 전남도지사 표창과 5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40만원, 은상 3팀 각 30만원, 동상 4팀 각 20만원이 곡성군수 표창으로 수여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 요리 아이디어와 곡성 농산물의 가치를 결합해 지역 농업과 K-Food 음식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추석 앞두고 답례품 차별화 나선다

명절 특화 이벤트 마련

담양군은 24일 “최근 고흥사랑기부제 상반기 성과 공유 및 답례품 차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담양군 고흥사랑기부제 실적과 답례품 판매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추진할 명절 특화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집중적으로 오갔으며, 군은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기부자들에게

더 좋은 답례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업체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답례품 공급업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으며,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1년간 공공 관광지 무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에 선포일(7월22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3%로 상향 적용된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 숙박세일페스타’...최대 5만원 할인

순천시는 24일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에 참여해 최대 5만원의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30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순천에서는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등 사계절 매력이 살아있는 관광 자원과 더불어 세계유산 축전(9월), 올덴가 축제(10월) 등 주요 행사와 맞물려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숙박 할인 혜택은 전남 지역 숙박업소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시 5만원, 7만원 미만 숙박 시 3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도 진행 중으로, 첫날은 숙박세일페스타, 이후 일정은남도 BIG 이벤트를 활용하면 장기 체류 관광객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도 BIG 이벤트는 전남관광플랫폼 앱 예약 시 1박 기준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순천=정기 기자